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산사에선 안거 도심에선 논강

6월 2일 해인사 동화사(사진 왼쪽)를 비롯 전국 100여 선원들은 일제히 결제법 요식을 갖고 3개월간의 갑신년 하안거에 들어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여름안거를 맞아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위해 3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백일법문' 재가강(오른쪽)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3·4면**
 사진=박재완·배지선 기자



출판계 '살아남기' 도 벅차다

불황 · 판매부진에 '범보시 출판'으로 견뎌... 기획력 · 인력도 부족

서울 도서전 5년째 참가조차 못해

불교출판이 장기적인 불황과 기획력 부족, 판매 저조 등으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불교계 출판사들이 펴낸 책은 출판사 당 고작 1~4권 정도. 그나마 초판본 1천여 부 밖에 찍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불교학술서의 경우는 200권도 채 팔리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정식 출판보다는 범보시 책 발간이나 편집대행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계 출판사들의 화두가 '양서 만들기'가 아닌 '살아남기'가 된지 오래라는 말을 절감하게 된다. 6월 4일 열린 2004 서울국제도서전은 이러한 불교 출판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행사였다. 도서전에서 불교 서적이라고 해 봐야 일반 출판들이 펴낸 책 몇 권이 전부였다. 불교계 출판사들이 "도서전에 참가해 봐야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실상 가지고 나갈 책도 없다"는 이유로 5년째 도서전에 참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매년 도서전에 참여해 온 (사)기독교출판협회는 5개 부스에 500여 종의 책을 전시하고 '기독교 도서목록' 등의 책자나 이벤트를 통해 홍보에 열을 올렸다. 물론 장기 출판 불황이 불교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등록된 출판사의 80~90% 정도가 일년에 단 한 권의 책도 발간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서점 60%가 문을 닫았다. 인터넷서점들

또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책 판매매금 결제를 늦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대인들의 활자 기피와 영상 선호 분위기에 경제 불황까지 겹친 탓이다. 하지만 불교계 출판사들은 이런 어려움에 더해 불교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족사 윤창화 대표는 오늘날 불교계 출판 현실을 "비전이 전혀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설명한다. 사실 98년 외환위기 이후 불교계 '출판계의 마지막 남은 보루'라 불릴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02년 탁났한 스님의 방한과 더불어 불이 일기 시작한 해외 고승 법문집과 불교 관련 서적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히 출간됐다. 지난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서도 30여 권이 넘는 불교 서적이 선보였다. 그러나 달라이라마, 탁났한 스님 등 '홍행보증수표'로 통하는 책이나 외국의 베스트셀러는 모두 일반 출판사의 차지다. 출간해 봐야 초판본도 다 팔리지 않는 불교 전문 서적은 일반 출판사로서는 '논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 출판계가 살아남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운주사 김시열 과장은 "출판사 스스로 필자 발굴은 물론 독자의 요구와 취향을 제대로 파악한 후 다양한 기획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종단차원의 지원 없이 출판

사 자체의 힘으로 최근의 난항을 헤쳐가기는 쉽지 않다. 일반 출판사들과의 '무한경쟁'에 내던져지기에 불교계 출판사들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독교출판협회에 소속된 출판사는 160여 곳이 넘고 서점만도 430여 개에 달한다. 반면 불교계 출판사로 이름이 알려진 곳은 10여 군데 남짓. 불교전문서점은 사할 내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구색 갖추기 식으로 책을 판매하는 곳을 포함하더라도 100여 곳 정도에 불과하다. 잘 팔릴 수도, 잘 팔 수 있는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결국 종단 차원에서 그동안 슬하계 대안으로 제기되어 온 독서캠페인 전개와 교구 본사 중심의 도서판매 건립, 경전독후감 공모 등 불교출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불자들 또한 경전과 각종 불교서적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지도를' 가지고 불서읽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현실에서 7월 초 열릴 예정인 '불교 출판사 대표자 모임(가칭)'이 관심을 끈다. 불교계 출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고질적인 불교출판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동화사 '담선대법회' 개최

9월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12회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가 '참선(간화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하안거가 끝나는 9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총 12회에 걸쳐 '담선(談禪대법회)'를 통일대법전에서 봉행한다. 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선과 선사상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선으로, 또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대안 사상으로서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봉행되는 담선 대법회는 고우·무여·지환·호진 스님 등 12명의 주

주와 매회 3인의 논사들이 초청돼 12가지 논제발제와 논평, 자유토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계종의 종지 종풍인 간화선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게 될 이번 담선 대법회는 △근본불교와 부파불교시대의 선사상과 실천 △육조단경의 선사상과 실천 △조사선의 성립과 수행체계 △간화선의 성립과 선사상 △간화선의 수행체계 △간화선의 수행방

법 △간화선의 수행과 선병의 문제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의 비교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과 극복 방향 등 간화선 수행과 관련한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하는 논제발제와 논평이 이어진다. 또 간화선과 한국불교라는 논제 아래 한국불교의 나아갈 바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053)985-4404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새기워 '지역불교현장을 가다' 7면

불교예술품 경매로 만나다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에서도 불교예술품을 경매로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마하몰(www.mahamall.co.kr)은 불교예술품 경매코너를 통해 불화나 범구 등 불교예술품을 경매한다. 경매코너를 신설하게 된 것은 최근 자신이 소장하고 싶어하는 개인들의 문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6월 7일부터는 청곡 이한동 화백의 팔상도 병풍 경매에 들어갔다. 이 팔상도 병풍 원본은 시가의 10% 수준인 4백만원부터 경매를 시작한다. (02)732-1520

정각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전국비구니회관 · 법통사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특별강좌

- 로터스(연꽃)영상프로그램: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마음공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 정목스님: 전 불교방송 차한천선율전행 / 마음고산방운영 6월 9일 - 10일 / 10:00-17:00 6월 12일 - 13일 / 14:00-20:00
- 묵선 심재영여사 초청 서예특강 - 심재영: 동방연서회 이사 / 미협서예분과위원 -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10:00

비구니스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 불화그리기 실습 - 무애스님: 동화사 승가대 졸 / 통도사 사명암 동원스님 사사 - 매주 화요일 13:00
- 불전현화 꽃꽂이 - 정명스님: 연꽃개발 특허출원 - 매주 수요일 10:00
- 사문자(문인화) 실습 - 지오스님: 충청남도 미술대전 ·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 매주 수요일 13:00
- 한지공예 - 법연스님: 신사임당 공모대전 특선 / 한지공예 개인전 - 매주 수요일 14:00
- 사찰음식 실습 - 선재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 매주 목요일 10:30
- 다도강좌 - 혜성스님: 한국명선차인회 이사장 / 서경다도연구회 회장 - 매주 금요일 10:00

전통교양강좌

- 우리기락 사물놀이 실습 - 윤용준: 대전 한밭제 전국농악경연 대회 장원 / 경기도 민속예술제 대상 - 매주 월요일 10:30
- 김숙자류 경기도살풀이 - 이정희: 김숙자류 경기 도살풀이 보존회 회장 / 이정희 무용학원 원장 - 매주 화요일 10:00
- 고전무용 - 정지영: 춘앵무와 처용무의 대가인 김현은 선생 1기 제자 - 매주 화요일 13:00
- 유창선생의 경기소리 실습 - 유창: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목계월선생) 경기민요 전수교 / 전국 경 · 서도민요경향대회 대통령 상 수상 / KBS 국악대상 수상 (초·중·고·대학) - 매주 금요일 10:30

교양강좌

- 앤들놀 노래교실 실습 - 선선호: 대한불자기수회 사무국장 / '동심', '신호등'의 작곡가 - 매주 월요일 13:00
- 서예 - 강혜영: 묵선 선생님 제자 (월1회 묵선 심재영선생 특강) - 매주 목요일 09:30
- 도자기 교실 실습 - 김태성: 현 군산도 산업예과 출강 / Lugia & Ottobre 도자기 공방운영 - 매주 목요일 (주 2회) 10:30
- 무료 어린이 한자 - 이인홍: 사단법인 한국어문화회 주최 한자능력1급 합격 - 매주 목요일 15:00

생활건강강좌

- 선무동작명상요법 실습 - 이선옥: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선무 무용치료전공 주임교수 - 매주 수요일 10:30
- 명상요가 - 천선혜: 마음공부 마스터 / 세계명상공동체 탐방 / 팔방 생명살림 '마음비구니프로그램 자연과의 교감' 진행 - 매주 목요일 10:00
- 금강승 선관무 실습 - 김재웅: (사)금강승선관무 서울본원 원장 / 원주중앙수련원 / 서울서초본원 - 매주 목요일 19:30

어학강좌 실습

- 일어 불전(교리) 강독반 - 황순일: 동국대 · 금강대 강사 / 충북대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매주 월, 수 19:30
- 중국어 불전(교리) 강독반 - 김진우: 동국대 강사 - 매주 화, 목 13:00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강좌

- 상용불교의식 실습 - 선정스님: 동대(경주)국악과 법패전공 / 효동법승대학 상주권공 수료 / 1999-2003년까지 운문승가대학 의식 강사 - 매주 금요일 13:00
- 다도강좌 - 혜성스님: 한국명선차인회 이사장 / 서경다도연구회 회장 - 월 1회 (6월 14일) 14:00

불교교리

- 불교의 첫걸음 실습 - 최홍석: 금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및 사회교육원 교수역임 - 매주 금요일 19:00
- 일요법문 - 법사: 혜원스님, 자광스님, 입법스님, 광곡스님, 운달스님, 승혜스님 - 매주 일요일 10시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

- 문의전화: (02)3411-8106, 8103

- 홈페이지: www.kbignuni.org